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16 Number 12 • 12 2008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예수님이 하나님인가요?

성탄절을 맞이하며

기 독교가 다른 종교나 이단과 갈림길이 되는 가장 분명한 부분은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반복하며 분명히 언급한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알 수 있다.

야훼(Yahweh)라는 단어는 구약에만 5,300번 이상 등장한다. 이는 한글로는 “여호와”, 영어로는 “Lord”로 번역되어 있다. 야훼라는 이름은 YHWH에서 온 것인데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I AM WHO I AM)”의 히브리 단어의 맨 앞의 알파벳을 연결하여 발음한 단어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I AM”을 말씀하신다. 예를 들면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I AM)” 그리스어로 야훼와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가 “Kurios”이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에서 주는 Kurios 즉 야훼를 의미한다.

엘로힘(Elohim)은 구약에 2,570번 등장하는데 하나님(God)으로 번역되며 능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예수님을 예언하는 이사야서 40장 3절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엘로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며 예수님에 대하여 야훼와 엘로힘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그리스어 Theos는 엘로힘과 동등하게 사용되는데 신약의 전체에서 예수님을 Theos라 부른다. 예를 들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했을 때, 간수가 “저와 온 집이 하나님(Theos)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16:34). 여기서 “예수”의 믿음이 곧 “하나님(Theos)”을 믿는 것으로 직결됨을 보여준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보더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히1:8). 그분은 무소부재 하신 분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엡 1:23).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히 1:3). 그는 주권자시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계 19:16). 그분은 죄가 없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고후 5:21).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는 점을 알게 될 때 위의 모든 것이 이해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 1:3);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골 1:16),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히 1:2).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창조주께서 피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성경은 구원에 대하여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만이 필요충분 조건임을 말한다. 그런데 그 창조주가 운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죄로 인해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자신의 형상을 위해 하나님 스스로가 죄 없이 돌아가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가 되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부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신 것이며(요 5:22),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이다(요 14:26).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가 모두 용서되어(골 2:13)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리는 하나라도 가는 길이 여럿(one of the ways)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예수님이 여러 길 중에 가장 빠른 길(the best way)도 아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only way)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그분이 창조자며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분이 진리 자체며,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며 창조하셨던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성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 스스로가 선포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3:6).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에 우리에게는 감격이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다. 죄로 인해 자신의 형상과 나뉘었던 담을 허시고 거룩한 곳으로 자신과 함께하기를 위해 스스로 오신 것이다.

우리에게 감격은 그분의 계시의 책인 성경을 받게 되는 전도의 방법 안에 들어갔으며, 이 성경을 믿고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슴 벅찬 성탄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재만 부회장



제외된 양치기



구 약성경의 시편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시편19:1)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 우주의 나이에 대하여 하늘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최근 일련의 관찰 결과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주 나이가 수천년에 불과함을 확인해 주고 있다. 아직도 수많은 혜성들, 지질학적으로 살아 숨쉬고 있는 달, 목성의 뜨거운 열 등 여러 과학적 사실들이 젊은 태양계를 지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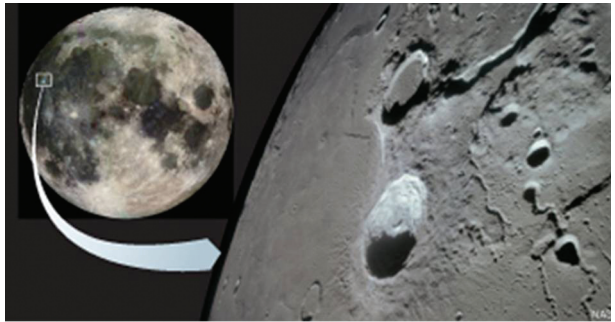
혜성의 존재 혜성은 먼 거리에서 태양을 선회하는 주로 얼음으로된 유성들이다. 이들은 태양에 접근할 때 얼어붙은 물질들이 증발하면서 긴 꼬리를 형성하며 멀리 날아가 버린다. 따라서 수명에 한계가 있다. 큰 혜성은 직경이 30마일에 이르며 핵으로 불리는 본체는 매우 작다. 또 물의 밀도 보다 작아서 그 핵을 관찰하기가 매우 어렵다. 대신 코마(coma)라고 불리는 밝게 빛나는 가스 덩어리와 이온입자와 먼지로 이뤄진 긴 꼬리를 볼 수 있을 뿐이다.

혜성은 행성들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데 가령 목성은 약 46개의 혜성들이 궤도 내에 있어서 목성의 중력으로 인해서 혜성 자체가 붕괴되기도 한다. SOHO우주선은 태양에 접근하는 혜성들을 주목했는데 1852년 비엘라(Biela) 혜성이 분리되는 것과 1872년에는 운석소나기(Meteor shower)들이 관측되기도 하였다. 천문학자들은 거의 모든 운석들이 혜성의 붕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본다. 흥미로운 것은 혜성들이 그들의 궤도로부터 크게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태양계에 소속된 것으로 믿어지며 또한 그 숫자가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일 태양계가 46억년되었다면 혜성의 공급은 이미 오래전에 끝이 났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혜성은 풍부하다.

이런 모순을 설명하려고 오랜 나이를 믿는 천문학자들은 반경 50만AU(지구와 태양

간의 평균거리에 오르트 구름(Oort Cloud)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이로 부터 오랜 세월 동안 혜성이 생성되는 것으로 믿었다. 칼세이건과 드루반(Ann Druvan)은 <혜성>이라는 책에 “매년 이 가상의 오르트 구름에 대한 특성과 기원 그리고 진화에 대하여 많은 이론 논문들이 출간되었으나 실제로 오르트 구름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고 고백하고 있다. 한편 주기가 짧은 단주기 혜성들은 명왕성(40AU) 궤도로부터 시작하여 55AU에 이르는 원반의 쿠퍼벨트(Kuiper Belt)로 부터 생기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쿠퍼벨트를 구성하는 유성들은 혜성과는 그 성분이 매우 다르다.

아직 살아 있는 달 지질학적으로 말해서 달은 살아 숨쉬고 있다. 천체 망원경이 나온 후 달 표면에서 발생하는 색깔과 밝기의 변화들, 채색된 지점들과 줄무늬, 구름과 얇은 안개, 그리고 너울 등 각종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런 현상들은 짧은 시간 발생하였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달의 일시현상(TLP: Transient Lunar Phenomena)이라 불린다.



달의 일시적인 현상(TLP)

과거 1900년부터 60여 년 동안 이 같은 현상들이 수없이 관측되었지만 무시되어 있었다. 이는 지구와 달의 나이를 46억 년으로 여겨 지난 30억년 동안 지질학적으로 죽은 상태일 것이라는 진화론적인 믿음 때문이었다. (달은 지구의 1/4의 크기로 무거운 질량들은 달의 중심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달은 지구 보다 더 빠르게 냉각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더이상 중심에 마그마는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TLP관측들이 풍성해 지면서 과학자들이 이들을 다루기 시작하였고 1968년 NASA는 이 사건들을 총 망라하는 연대기(Chronological Catalog of Reported Lunar Events)를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성경은 과학적인 것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것을 포함하여 터치하는 모든 영역에 진리를 제공한다. 이는 사람의 생각 위에 있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말씀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그리스도가 창조자시고 구원자시며 그와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메세지일 것이다.

창조과학선교회 중부지부: 이동용 (PhD in Aerospace Engineering)
참조: “The Heavens Declare...A Young Solar System”,
Dr. Ron Samec, Answers, Vol. 3, Jan-Mar. 2008.



이동용
중부지부장
항공기계
공학박사



“하나님이그들에게복을주어가라사대생육하고번성하여여러바다물에충만하라
새들도땅에번성하라하시니라” (창122).

충만하라

동 물들이 갖고 있는 경이로운 본능 중에 “이주(migration)”를 빼놓을 수 없다. 특별히 물고기와 새들을 보면 뚜렷하다. 태평양연어는 민물에서 부화하여 바다로 내려갔다가 2-6년을 지낸다. 그리고 정확히 자신이 태어났던 곳에 다시 와서 알을 낳고 죽는다. 돌아올 때 강물을 거슬러 올라오는 거리는 수백 km에 달한다. 이와 반대로 바다로 돌아가서 알을 낳는 물고기도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뱀장어인데 새끼는 몇 달 또는 몇 년씩 대양에서 수천 km를 표류하다가 민물로 이주한다. 그밖에 은어, 칠성장어, 상어, 오징어, 물개, 고래, 거북이도 이주한다.

새의 경우에 장거리를 여행하는 새들도 많은데 주로 계절에 따라 이주한다. 일반적으로 겨울에는 따뜻한 곳 여름에는 극 쪽으로 향한다. 일반적으로 고도를 150-600m를 유지하지만, 북미 붉은 오리(pintail), 중앙아시아에 사는 bar-headed 거위, 흑꼬리 도요새 등은 5,000m 이상의 히말라야 산맥을 넘기도 한다.

장거리를 이주하는 새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새는 북반구의 제비, 오리, 거위, 백조 등이다. 이들은 겨울이 되면 얼음이 얼지 않는 남쪽으로 향한다. 이주를 할 때 심 없이 비행하기도 한다. 논스톱 비행하는 흑꼬리도요새는 뉴질랜드에서 한국의 황해까지 약 11,000km를 9일

동안 쉬 없이 비행하는데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도 않는다(아래 그림).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중간에 멈추기는 하지만 총 이주거리로는 북극제비갈매기가 단연 앞선다. 북극지방에서 서식하다가 남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까지 이주하는데 3개월 걸려 무려 22,000km를 비행한다. 흰목 노리새는 여름은 독일에서 나고 겨울은 아프리카에서 난다. 여름이 가까워질 때가 되면 새끼 새는 독립하는데, 부모는 새끼를 남겨 놓은 채 먼저 아프리카로 떠나 버린다. 남겨졌던 새끼 새는 몇 주 후 그 자리를 떠나 수천 마일 낯선 땅과 바다를 가로질러 먼저 떠났던 부모를 만난다. 새들이 이주 방법으로 날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펭귄은 헤엄치면서 이주하는데 이주 거리가 1,000km에 달한다. 뇌조(blue grouse)와 호주에 사는 에뮤(emu)는 새지만 걸어서 이주한다.

곤충가운데 이주로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제왕나비(Monarch Butterfly)다. 캐나다에서 멕시코까지 시속 50km 이상으로 총 5,500km를 이동하는데 최고 3,500km 높이로 비행한다. 어떤 경우는 16시간 동안 한번도 쉬지 않고 600km를 비행할 때도 있다. 일생이 짧기 때문에 자신들이 한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을 가야 하는데 정확히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동물들의 이주에 있어서 어떻게 항로를 결정하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가 실시되어 왔다. 그 가운데는 태양, 별자리, 지구자기의 변화에 따른 위치를 확인한다는 가설들이 있다. 특히 연어의 대해서는 자신이 태어났던 지역의 물 냄새를 기억하는 고유의 행동이라는 학설이 알려져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

이 경이로운 본능은 아직도 계속 과학자들의 궁금증이다. 과학자들에게 가장 확실한 부분은 이들이 이동하는 경로뿐이다. 나머지는 창조될 때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이주본능은 창조 때의 동물들에게 심어졌으며 노아홍수 이후에 오늘날의 형태로 발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흑꼬리도요새의 이주경로



이재만
창조과학
선교회
부회장

| 창조과학 탐사여행 | 세미나 |

아버지학교 탐사여행

지난 10월 5-8일 나흘간 아버지학교 팀들의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있었습니다. 출발 전인 2-4일에 국제 아버지학교 컨퍼런스가 엘바인 온누리교회에서 열렸는데 그 후속 프로그램으로 탐사여행이 이어진 것입니다. 권준 목사님(미주 본부 지도목사)김성목장로님(국제 본부장), 현덕인 집사님(미주 본부장), 조규배(기획국장), 이재환(사무국장) 등 아버지학교 임원진 모두는 이미 탐사여행에 참석하셨으며, 아버지학교에 귀한 도우미가 될 것을 확신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본국에서 오신 분들이셨는데, 한결같이 소중한 체험을 하였으며 앞으로 아버지학교의 한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실제로 매년 1월 말에 출발할 계획이 있음을 창조과학선교회에 타진해왔습니다. 그 감동의 마음들을 간증코너에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샌디에고 연합장로교회 탐사여행

지난 10월 20-22일 사흘간 샌디에고 연합장로교회(담임목사 강용훈)에서 탐사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강용훈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창세기 성경공부 팀들이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갖게 된 기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으로만 창세기를 공부했지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을 예상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참석자들 가운데 “여행이 주된 목적이었고 창조과학은 아주 일부만 기대했는데, 차에서 떠나자마자 거꾸로 창조과학에 대한 지식을 얻는 기대가 다 차지하게 되었다” 고 간증하셨습니다. 앞으로 2세들을 위한 기회와 빙하시대 여행에 참석도 기대하셨습니다.

6차 유학생 탐사여행 출발(12월 29-31일)

오는 12월 29-31일 6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출발합니다. 이번 탐사여행 코스는 세도나, 규화목 국립공원, 그랜드캐년입니다. 서울 온누리교회와 엘바인 온누리교회의 후원으로 참가비는 \$70입니



다. 참석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참석자들께서 주위의 캠퍼스 동료들에게 추천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격은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샌디에고 탐사여행 출발(12월 25-27일)

매년 말이면 어김없이 샌디에고에서 출발하는 탐사여행이 있습니다. 샌디에고 한빛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벌써 8회째 접어들니다. 경유지는 그랜드캐년, 세도나, 모하비 사막 등입니다. 한빛교회나 창조과학선교회로 연락바랍니다.

한마음 침례교회/템피장로교회

이재만 선교사는 지난 10월 24-26일 북가주에 있는 한마음 침례교회(담임목사: 심석보)에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2년 전에 다섯 번의 세미나를 통해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엔 우주의 기원, UFO의 진실, 격변과 지구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등의 추가적인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주일예배 후에는 Q & A시간을 통해 자유롭게 질의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최우성 선교사는 10월 25-26일 아리조나 피닉스 근교에 있는 템피장로교회(담임목사: 윤정웅)에서 노아홍수, 노아방주, 공룡과 지구의 나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강연을 통하여 성경의 사실들을 알기 원하는 목마름을 채워 주었고 새로운 도전을 주었습니다.

인랜드교회 중보기도학교

매년 가을에 인랜드 교회(담임목사 최병수)에서는 중보기도학교에서 창조과학세미나를 열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기원에 관한 근본적 질문”과 “격변과 지구나이”를 이재만 선교사가 인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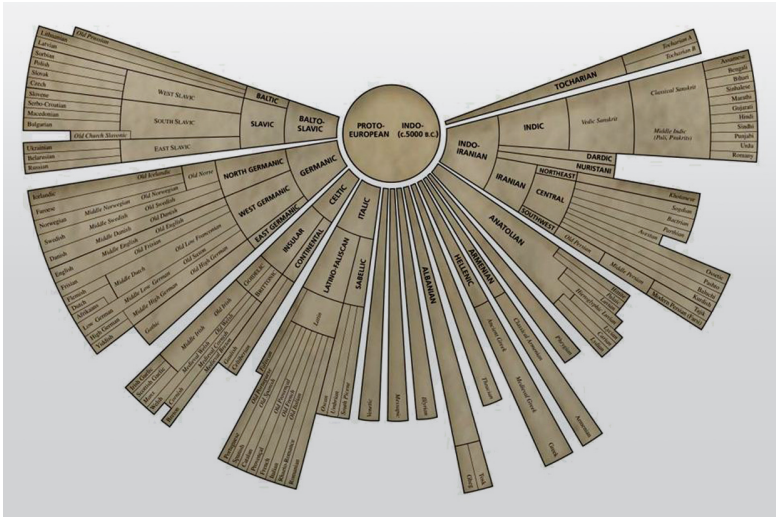
2008년의 사역을 마감하며

창조과학선교회의 2008년 사역은 1월 2일 제 5차 유학생 탐사여행으로 시작하여 12월 31일 제 6차 유학생 탐사여행으로 마감하게 될 예정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풍성하게 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6회의 창조과학탐사여행, 두 번의 창조과학학교, 수백 회의 국내외의 각종 창조과학 세미나, 월간 뉴스레터 발간, 신학교 강의, 복음방송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하신 사실들을 널리 전파하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많은 교회와 단체 그리고 개인들의 헌신과 사랑의 후원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속적으로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탐사여행을 인도하는 이재만 부회장과 다른 사역자들이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가정에 평안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록하여 둡니다. 우주의 창조주로서 이 땅에 구세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그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사역일정	2008년 사역일정
1월 2일 제 5차 유학생 탐사여행 (미국, 캐나다, 멕시코)	1월 2일 제 5차 유학생 탐사여행 (미국, 캐나다, 멕시코)
1월 1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캘리포니아)	1월 1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캘리포니아)
1월 1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텍사스)	1월 1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텍사스)
1월 2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아리조나)	1월 2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아리조나)
1월 2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뉴멕시코)	1월 2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뉴멕시코)
1월 3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콜로라도)	1월 3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콜로라도)
2월 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유타)	2월 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유타)
2월 1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사우스다코타)	2월 1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사우스다코타)
2월 1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노스다코타)	2월 1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노스다코타)
2월 2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미네소타)	2월 2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미네소타)
2월 2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일리노이)	2월 2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일리노이)
2월 3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인디애나)	2월 3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인디애나)
3월 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오하이오)	3월 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오하이오)
3월 1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펜실베이니아)	3월 1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펜실베이니아)
3월 1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메릴랜드)	3월 1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메릴랜드)
3월 2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버지니아)	3월 2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버지니아)
3월 2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북캐롤라이나)	3월 2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북캐롤라이나)
3월 3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사우스캐롤라이나)	3월 3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사우스캐롤라이나)
4월 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조지아)	4월 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조지아)
4월 1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플로리다)	4월 1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플로리다)
4월 1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앨라배마)	4월 1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앨라배마)
4월 2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미시시피)	4월 2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미시시피)
4월 2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루이지애나)	4월 2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루이지애나)
4월 3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텍사스)	4월 3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텍사스)
5월 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아리조나)	5월 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아리조나)
5월 1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뉴멕시코)	5월 1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뉴멕시코)
5월 1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콜로라도)	5월 1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콜로라도)
5월 2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유타)	5월 2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유타)
5월 2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사우스다코타)	5월 2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사우스다코타)
5월 3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노스다코타)	5월 3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노스다코타)
6월 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미네소타)	6월 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미네소타)
6월 1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일리노이)	6월 1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일리노이)
6월 1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인디애나)	6월 1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인디애나)
6월 2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오하이오)	6월 2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오하이오)
6월 2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펜실베이니아)	6월 2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펜실베이니아)
6월 3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메릴랜드)	6월 3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메릴랜드)
7월 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버지니아)	7월 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버지니아)
7월 1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북캐롤라이나)	7월 1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북캐롤라이나)
7월 1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사우스캐롤라이나)	7월 1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사우스캐롤라이나)
7월 2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조지아)	7월 2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조지아)
7월 2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플로리다)	7월 2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플로리다)
7월 3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앨라배마)	7월 3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앨라배마)
8월 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미시시피)	8월 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미시시피)
8월 1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루이지애나)	8월 1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루이지애나)
8월 1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텍사스)	8월 1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텍사스)
8월 2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아리조나)	8월 2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아리조나)
8월 2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뉴멕시코)	8월 2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뉴멕시코)
8월 3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콜로라도)	8월 3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콜로라도)
9월 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유타)	9월 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유타)
9월 1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사우스다코타)	9월 1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사우스다코타)
9월 1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노스다코타)	9월 1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노스다코타)
9월 2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미네소타)	9월 2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미네소타)
9월 2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일리노이)	9월 2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일리노이)
9월 3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인디애나)	9월 3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인디애나)
10월 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오하이오)	10월 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오하이오)
10월 1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펜실베이니아)	10월 1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펜실베이니아)
10월 1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메릴랜드)	10월 1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메릴랜드)
10월 2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버지니아)	10월 2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버지니아)
10월 2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북캐롤라이나)	10월 2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북캐롤라이나)
10월 3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사우스캐롤라이나)	10월 3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사우스캐롤라이나)
11월 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조지아)	11월 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조지아)
11월 1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플로리다)	11월 1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플로리다)
11월 1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앨라배마)	11월 1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앨라배마)
11월 2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미시시피)	11월 2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미시시피)
11월 2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루이지애나)	11월 2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루이지애나)
11월 3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텍사스)	11월 3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텍사스)
12월 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아리조나)	12월 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아리조나)
12월 1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뉴멕시코)	12월 1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뉴멕시코)
12월 1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콜로라도)	12월 1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콜로라도)
12월 2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유타)	12월 2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유타)
12월 2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사우스다코타)	12월 25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사우스다코타)
12월 3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노스다코타)	12월 30일 제 1회 창조과학학교 (노스다코타)



바벨탑?? 바벨탑!!! (6)



언어는 진화하는가?

현 재 6,912 가지의 말이 지구상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말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세속 학자들의 상상처럼 한 언어를 가진 한 집단이 성장 분리 되어 세계 각국으로 퍼져 나가면서 이처럼 다양한 언어가 점차로 생겨났을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바벨의 기적이 있는 이후에 언어가 더욱 다양하게 변화 된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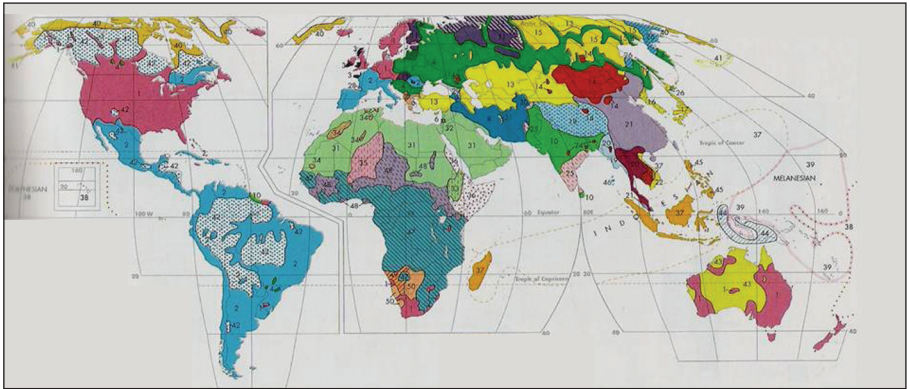
언어는 계속해서 변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구나 지역적인 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되는데 미국의 영어와 영국 영어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흥미로운 예는 아이슬랜드의 스칸디나비아인들은 유럽 본토의 스칸디나비아인들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기록 된 언어, 사전, 컴퓨터가 있어도 이 변화를 멈출 수 없다고 한다. 예를 들면 영어의 let이란 단어는 과거에 prevent 즉 무슨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를 가졌는데 지금은 반대의 뜻인 allow란 뜻이 되고 말았다. 사람들이 즐겨 먹는 고기(meat)도 예전에는 일반적인 음식(food)이란 뜻으로 쓰였다고 한다.

언어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렇게 변화 된 언어들이 어떤 한 언어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룹을 지을 수 있고 최초의 언어 집단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진화론적인 발상은 언어 그룹들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곧 벽에 부딪히고 만다.

현재 가장 많이 연구 된 언어 그룹은 449 언어가 속해 있는 인도-유럽어족으로 전 인류의 45%가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으로 이 들의 조상 언어를 Proto-Indo-European이라 부르고 약자로 PIE라고 부른다. 둥근 파이를 전 인구라 하면 이 파이의

45%는 인도-유럽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세속 학자들은 이 조상 언어가 BC 7000~3000 년을 전후하여 사용되었을 것으로 상상하고 있다. 이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족은 403 언어가 속해 있는 Sino-Tibetan으로 중국어 등 세계 22%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92 개의 다른 어족이 있다고 하는데 세속 언어학자들은 이들 언어들이 공통언어에서 나왔고 수 차례의 진화를 겪었을 것으로 믿지만 문제는 논리적으로나 수학적으로나 언어가 급격하게 다른 언어로 변화하는 진화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이 어족들이 어떻게 공통 언어에서 나타나게 되었을까? 성경의 역사나 2004년 Nature지(30 September 2004)에 의하면, 이 94 어족들은 약 4,000 년 동안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급격한 경계를 보이는 언어 그룹들

현재의 다양한 언어로 변화 되었음이 틀림 없다. 연구가 계속 진행 되면 어족의 수가 70여 어족으로 결론이 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기록인 창세기 10장의 기록에 의하면 노아의 세 자손들로부터 언어와 족속(according to the families)과 나라대로 세상의 백성이 나뉘게 되었다고 하면서 79명의 족장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모든 인류가 한 혈통이며 한 언어를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현재 세속 언어 학자들이 발견한 어족의 수는 성경의 사실 기록과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세속 언어학자들은 이 100여 개 미만의 어족들이 어떻게 한 언어에서 파생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방법이 없다. 세계의 지도에 언어 그룹들을 표시해 보면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급격한 경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위의 그림). 진화론적인 발상으로는 이런 차이를 설명할 길이 없다. 세계 모든 민족들은 모두 매우 복잡한 언어 체계(문법)를 가지고 있고, 무한, 수, 반대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 바벨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고는 이런 다양한 어족들과 개념들의 기원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답(성경)을 보지 않고 이런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물질과 시간과 공간과 생명의 기원처럼 언어의 기원은 기적으로만 가 능하기 때문이다. -다음 호에 계속



최우성
서부지부장,
생리학박사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촉진하는가?

지난 글들에서 지구 온난화는 태양 활동에 기인한다는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번에는 사람에 의해 생긴 이산화탄소(CO_2)는 지구온난화의 주 요인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이산화탄소가 그 원인이란 주장에 커다란 논리적인 약점이 있음이 알려졌다.

알 고어는 <불편한 진실>에서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 평균온도간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촉진하는 것이 틀림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50년간 하와이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의 급격한 증가와 온도 추이를 비교했다. 지난 1000년간의 온도를 여러 학자들이 여러 방법으로 추정한 것을 보면 오랫동안 비교적 일정했던 온도가 산업화가 시작 된 1850대년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측정된 이산화탄소 농도와 비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비례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고기구학자들이 널리 사용하는 방법으로 정밀한 조사를 한 결과 알 고어가 제시한 온도 표와는 반대로 지난 1000년간 온도 변화가 크게 달랐던 기간이 있었음을 알았다. AD 1000년에서 400년간은 온화한 기간으로 농작물이 풍성했고, 경제가 활기를 띠었으며, 바이킹들은 빙하가 녹은 그린랜드에 정착하였다. 그러나 그 후 1400년에서 1900년경까지 500년간은 기온이 떨어졌는데 이때는 포도 재배가 안되고, 경제가 쇠퇴하고, 바이킹들은 밀려오는 얼음에 그린랜드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이 기간에 태양 흑점 수는 줄어 들었다(Maunder Minimum). 이 기간 중에서도 가장 추웠던 때를 작은 빙하기라 부르는데 흑점이 가장 적은 때였다(보통 4~5만개인데 이때는 50개에 불과했음(그림1)). 이런 온도 변화가 흑점 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태양이 천 년 정도의 기후변화 주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지난 수천간의

연구는 흑점과 날씨나 기후 사이의 분명한 물리적인 현상을 확인하지 못했다.

1850년에서 2000년까지 온도 경향을 자세히 분석해 본 결과 지구 평균 온도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간 것처럼 상승하지 않았다. 1850년에서 1940년까지는 온도가 올라가지만 1940년부터 1970년까지는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그림2). 이 시기에 최대 공산품 생산 증가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만약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도를 올리는 것이라면 온도가 내려가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다. 세계 2차 대전 후 공업 생산과 이산화탄소 배출은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온도는 떨어져 기후학자들은 빙하기가 오지 않나 걱정하기까지 했었다. 1970년부터 온도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이산화탄소 농도와 일치하지 않는다.

고어도 과거 얼음 표본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산화탄소와 온도가 상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어가 제시한 자료에서는 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의 통계적인 상관관계를 보면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인지를 알 수 없다. 반면에 그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그림3) 그림3) 고어가 제시한 자료를 자세히 보면 온도가 이산화탄소 농도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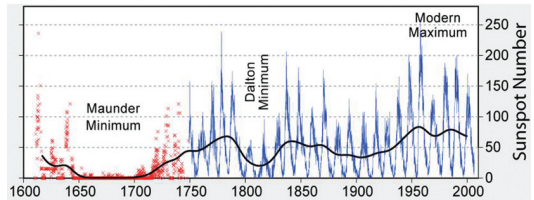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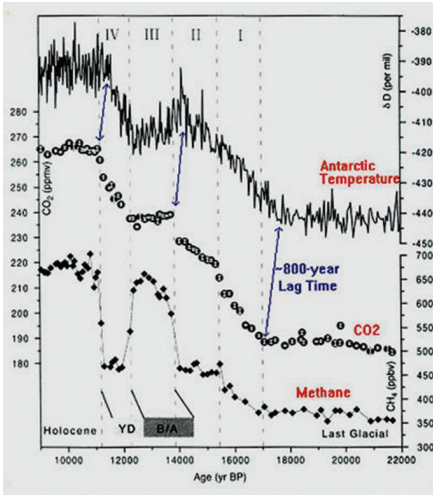


그림 1) 400년간의 태양 흑점 관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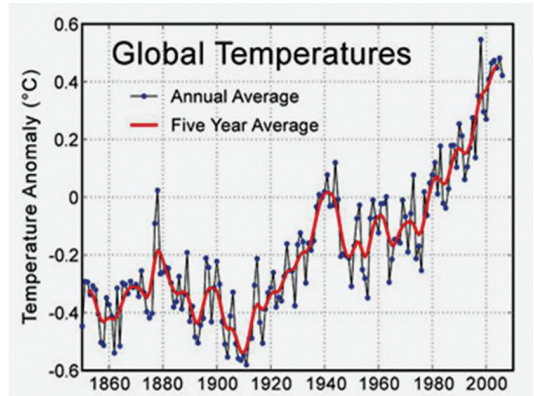


그림2) 1940~1970년대의 온도는 내려갔다.

온도가 이산화탄소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임이 확실해 진다. 이 그림을 보면 온도 변화가 이산화탄소와 메탄 농도 변화보다 800년 선행 되어 그 변화를 이끌었음을 보여준다(여기 보여준 그래프의 연대는 오래 된 지구를 가정한 것으로 상관 관계는 유효하지만 실제 연대는 훨씬 짧음!). 이 관계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바다가 따뜻해져 물 속의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방출된다는 것이다. 바다는 대기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는데 데워지면 방출하고 차가워지면 흡수하기 때문이다.

Larry Vardiman, Ph.D. 대기학 박사/ ICR 연구 책임자
Acts & Facts. 37 (10): 10

탐사여행을 마치고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랜드캐년 뒤에 계시는 그분의 생각, 그분의 능력, 그분의 공의를 보며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드린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미국, 마이애미 온누리교회, 김낙경

미국의 3대 캐년을 돌아보며 숨이 막히는 장관들 속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무척 싫어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만드실 때의 감격과 좋으셨던 마음에도 물로 쓸어 버리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준비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셔서 오늘의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국, 마이애미 온누리교회, 김효숙

하나님은 정말, 정말 위대하시다.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번 탐사여행이 저에겐 또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넘침을 알았습니다. 멀리 계시고 때로는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잘 모르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심을, 그 역사의 현장,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사랑 전하겠습니다. -한국, 은혜 누림교회, 김철현, 이형숙

막연하던 창조론의 증거를 눈으로 보고 돌아옵니다. 창조사실을 봤어요, 신무기를 얻은듯한 군인의 모습을 봅니다. 더욱 자신 있는 목회현장의 목사, 사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산정감리교회, 임성수 목사, 이은자 사모

죄로 망가진 인생,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 참으로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찬양하리라. -한국, 두란노 아버지학교 사무국장, 임광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살면서 창조주를 실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적 논리 속에 갇혀 있었던 나 자신을 보게 되었으며 ...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한국, 두란노 아버지학교, 민만규

처음 창조과학 탐사여행 일정표를 보고 딱딱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 지금 모습이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란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고 사모함이 생겼어요. -한국, 태평교회, 하은주

이번 창조과학 탐사여행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눈으로 목도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여정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의 그 감동과 소망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간직하려고 다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아내와 아이들에게 꼭 다시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국, 두란노 아버지학교, 유광중

성경공부를 하면서 잠재적으로 깔려있던 진화론에 막혀 있었던 성경공부가 풀림을 느끼면서 성경 책에 믿음이 굳혀짐을 확신합니다. - 한국, 김은수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던 구절들이 이해가 되었고, 책으로 보던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강의를 통해 이해하면서 사물을 보니까 더욱 유익하고 뜻깊었습니다. ... 하나님의 믿음, 시각, 삶의 의미, 목적들이 더욱 확실해지고 생각이 확 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 한국,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해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창세기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창세기를 이해하게 되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 믿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고 부모님도 친구들도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느끼며 ... -한국, 서산제일감리교회, 김보형

출발 전 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기를 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증거를 통하여 보게 하시고 내 손에 성경이 있었음을 인식하게 하셨다.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통해 이제 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며 나의 구원자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 한국, 서산제일감리교회, 한은미

나에게 성경을 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 더 많은 이웃을 섬기며 성경을 전하는 일에 노력하겠습니다. 나 혼자 이런 좋은 교육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 너무 아쉽고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녀와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한국, 이정춘

아버지학교 세계 대회를 마치고 떠난 창조과학선교회와 함께한 여행은 충격이었습니다. ... 그동안 배우고 알고 있었던 기존 과학 이론 패러다임에 빠져 하나님의 창조 역사 패러다임을 잊고 살았나 봅니다. - 한국, 꽃동산 교회, 홍기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서 그랜드캐년을 통해 나를 만드신 것에 대해 재확인하는 정말 은혜로운 여행이었습니다. - 캐나다 토론토, 이이희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을 눈으로 본 여행이다. - 캐나다 토론토, 남기주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고 있었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노아 홍수 사건을 현장을 보고 확신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한국, 청주, 김의동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며 다시 한 번 숨을 들여 쉬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섭리를 다시 한 번 보게 하시고 가슴 떨리는 모습에 감격했습니다. -한국, 소망교회, 곽경숙

아버지학교 3차 세계대회를 마치고 진행된 “창조과학탐사여행” 간증문

2008년 ACT Schedule

11/3	동양선교교회 평생학습원 (세미나, 이재만), L.A, CA
11/4	Cerritos Coffee Break (세미나, 최우성, 714-745-0282), Cerritos, CA
11/5-8	창조과학학교 시애틀 형제교회, WA
11/13	National Creation Science Foundation at ICR 참석 (이재만), Dallas, TX
11/17-19	창조과학 탐사여행 (생수의 강 선교교회, 562-653-0178)
11/18	KCCC (세미나, 최우성, 213-210-5224), L.A, CA
11/21, 23	한양 장로교회 (세미나, 이재만, 818-419-3021), CA
11/21-24	현지교회 및 한인교회 (세미나, 이동용), C국
11/27-29	창조과학 탐사여행 (동양선교교회, 213-381-1390)

12/9	뉴저지 하늘문교회 (세미나, 이재만, (213) 381-1390), L.A, CA
12/25-27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빛교회??858-733-1129), San Diego, CA
12/29-31	6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 (213-381-1390)

2009년

1/5-1/16	월드미션대학교 강의 (이재만, (323-823-4629), L.A, CA
1/17-19	창조과학 탐사여행 (월드미션 대학교)
3/16	부산대학교 (이재만), 본국
3/16	인제대학교 (이재만), 본국
4/16-18	창조과학 탐사여행 (샌디에고 베델한인교회, 760-745-4977)
4/20-23	창조과학 탐사여행 (시카고 웰로십 교회, 213-381-1390)
5/11-14	창조과학 탐사여행 (MOM 선교회, 408-313-1527)
5/23-25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213-446-2821)
6/15-18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미준 강사 수련회, 213-381-1390)
7/16-18	창조과학 탐사여행 (모집, 213-381-1390)
7/31-8/2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공동체, 213-446-2821)
9/5-7	창조과학 탐사여행 (온누리교회, 213-382-5658)
9/14-17	창조과학 탐사여행 (새시대 목회자, 이재만, 404-944-1872)
9/18-20	유타 교회 협의회 (이재만) Salt Lake City, UT
10/23-25	토론토 성산교회 (세미나, 이재만, 416-785-4620), Canada
11/26-28	창조과학 탐사여행 (동양선교교회, 213-381-1390)
12/28-30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빛교회??858-733-1129), San Diego, CA

후 원 |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